

심부름
 그 어느 상의 그윽한 곳에
 구름을 베개삼아 내가 잠들까
 이 가운데 뜻을 얻으면
 네거리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리라.
 -경허 성우-

현대불교

佛事 전년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서양미술이 모든 것
 책임 담당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홍사 협동대표

대외교과 02-733-4801 구독문의 02-733-079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4일 수요일(주간) 제 288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佛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신행혁신을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신행 세미나에서 발표된 불자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불자들의 잘못된 신행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삼보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25%에 불과했고, 팔정도에 대한 이해도는 23% 였는데 34% 정도였다. 연기법과 사성제 등에 대한 믿음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처님 가피에 대한 믿음은 82%에 달해 부

신행
 부처님 걸으신 길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 희망

처님 가르침보다 부처님가피력에 많이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신행태도는 한국불교가 기독교의 타락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결과로 해석되며 자칫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불교의 유와 신앙구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신행 하면 대부분의 불자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만 생각한다. 모두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고 공부인데, 달은 보지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열심히 보고 있는 꼴이다. 3천배 1만배를 자랑하지만 진실로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채우기에만 만족한 다면 온 마음을 다한 1배만도 못할 것이다.

불자라면서 절을 보러 물러다니거나 심지어 다니는 절 스님에게 절을 바랄라거나 부처님가피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비불교적인 행위가 '방편'이라는 말로 정당화 넘어가거나 합리화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는 순간에서조차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라"고 강조하셨다. 스스로 부단히 닦고 수행해 깨달음 증득하기를 요구하신 것이다.

불자들은 자주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세와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로지 부처님법을 확실하게 믿고(信) 바르게 이해하고(解) 그 법에 의지하여 실천해 옮기고(行) 사리에 회향하는 것(證)이 바로 바른 신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경숙 기자(gilee@buddhapia.com)

매년 2천만명 '절 구경만'

기획연재
관람료 사찰과 포교
 ①포교는 없고 관람만 있다
 ②포교 '안하나' '못하나'
 ③투자없이 미래없다

언제부터인지 '관람료사찰=관광사찰'이라는 풍속이 낫설지 않게 되었다. 사찰 들머리의 담판에서부터 뒷산의 부도까지 지극한 신심과 예술혼으로 빚어낸 성보물이 있는 사찰의 품격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류이다. 지금까지 수행처 사찰들은 관람료를 받으면서도 재발로 찾아오는 참배객들에게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관람료사찰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불교를 전하는 여법한 도량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 73곳중 28곳만 사찰소개 리플릿 비치

안내소 설치 동화사뿐 '관광객 포교프로 절실'

조계종 사찰은 70곳, 태고종 2곳, 법화종 1곳이다. 인천 2, 부산 1, 대구 3, 울산 1, 경기 4, 강원 7, 충북 2, 충남 8, 경북 15, 경남 8, 전북 10, 전남 12곳 등으로 고루 분포돼 있다. 99년 한해 동안 연인원 2천1백만742명이 관람료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문화재 사찰을 다녀간 셈이다. 이에 따른 한 해 관람료 수입은 267억원에 이른다. 267억원의 30%는 문화재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12%는 중대 교육 분담금으로, 58%는 당해 사찰의 재정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관람료사찰의 경우 관람료 수입이 사찰 재정의 6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람료 사찰이 포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포교에 소홀한 사찰일수록 관람료가 사찰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정신도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특별한 준비없이도 하루에 수십명, 수백명의 방문객들이 관람료를 내고 사찰을 찾아 오는데 굳이 '정보제공 서비스'와 '안내' '포교'라는 수고를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찰의 무심함의 끝바로 방문객들의 불만으로 폭발되고 있다. 우선 관람객들은 사찰 초입에 세워진 사찰 안내관을 보고 온혹스러워하기 일쑤다. 사찰에 깃든 신앙과 문화이야기는 속 편 채 앙상시 중심으로 깨알처럼 적어 놓은 글씨에 끝까지 읽어 내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그 뿐이 아니다. 사찰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어도 사찰 안내소와 안내원은 물론 안내 리플릿 하나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관람객들은 그저 박재된 전시품 감상하듯 둘러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관광상품 또한 강인도를 가나 진라도를 가나 천편일률적 이어서 식상하기 마련이다. 참배객들의 생각도 관람객들의

컴퓨터훈련소 대북지원 추진

진각종 방북단, 조불련과 5개항 합의

진각종(총리위원장 성초)이 오는 12월초 베이징에서 남북불교도가 참가하는 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평양에 북한불교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컴퓨터훈련소 설치를 추진한다. 또 금강산 사찰 복원이 본격화할 경우 장안사 복원에 적극 참여하며, 진각종총인 회담대중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02년 조선훈교도연맹 대표단을 서울에 초청하기로 했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8일간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상초총리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 교환했다고 밝혔다. <관련인터뷰 3면>

성초 총리위원장은 "통일포럼 회의의 주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로 정했으며 일정과 내용은 중대협회의 협의해 10월초 북측과 예비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협회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

기간중 묘향산 보현사에서 북한대표들과 일반 불자 등 300여명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결의하는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한 것을 비롯해 구월산 월정사 정방산 성불사 등 주요사찰을 참배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조불련 대표
 올 세번째 친서교환

중대협회의 회장 정대스님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중앙위원장이 서로 친서를 교환했다. 정대스님은 9월 19~26일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성초 총리위원장을 통해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 불교가 더욱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며,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태화 위원장에게 보냈다. 박태화 위원장은 답서에서 "우리 북남불교도들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총무원장님과의 만남이 머지않아 실현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성운 기자



원효-의상대사 眞影사진 첫 공개

직지사 '한국고승 진영전'

국내에선 처음으로 15세기에 그려진 의상(사진 위)·원효 스님의 진영이 일반에 공개됐다. 1일부터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열리는 '한국 고승진영전'에서는 일본 고트박물관에 보관중인 15세기 의상·원효 스님의 진영이 실물 크기의 사진으로 전시된다. 이번 특별전은 11월 20일까지 계속된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20일 선출

조계종 원로의회의 20일경 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한다. 권토회의 수석부위원장 종산스님은 9월 28일 기자회견의 전화통화에서 "20일쯤 원로의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의회의는 의장 탄성스님이 지난 6월 8일 입적함에 따라 의장 공석 상태이다. 정성운 기자

"공원구역 해제 신중" 조계종, 환경부에 요청

조계종총무원(위원장 정대)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비계획(안)과 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자연·생태·문화환경의 훼손을 복원·관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9월 18일 환경부에 보낸 '정비계획에 대한 조계종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신행정보-심층보도 강화

생활과 불교의 합일을 지향하는 현대불교는 중간 6주년을 앞두고 큰 폭으로 지면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걸친 지면 개편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끝없는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독자 여러분의 삶과 수행의 도반이 되는 길을 찾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신행면과 심층 보도 기능을 강화하여, 불자로 세상살기의 바람직한 모델과 그 구체적 방안 그리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형태의 진지한 모색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상시의 자잘한 문예에 대해 등재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서도 밟는 행으로 불교도를 가꾸어 가는 불자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하다는, 끝내는 이 세상이 곧 정토로 바뀔 것이라는 불자들의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레왔듯이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걸침'만 곧 '법당'이 되는 신문이 되겠다는 청마음을 잃지 않을 것을 밝히며,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 3면에 '새 기획' 소개

고미우신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mm~265mm)

- 천연가죽 뉴백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나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051309-7000 ● 서울영업본부 0213200-600
 ● 남서울지점 0213200-620 ● 남서울지점 0213200-780 ● 대전지점 0421582-1892
 ● 호남지점 0621956-2131 ● 대구지점 0531954-5476 ● 평남지점 0511309-7110

Only One Number One
(주)트렉스타 본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심곡동 388-1 TEL: 051-309-3663(FR)
 FAX: 051-309-3666 서울영업소/02-863-2566
 http://www.treksta.co.kr

성불화-자비로